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 여호수아 24장 19-25절

Tag: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겔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수 24:19-25)

우리나라에는 질투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 유교적인 생각이다.(유교에서는 이 질투를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물론 인간적인 질투는 아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향한 질투이지 우상을 향한 질투가 아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가짜 신들은 질투할 줄도 모른다. 그들에게는 정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신들은(신들이기 보다는 영웅?) 자기들 끼리 질투하기도 한다. 그것은 신화이지 역사가 아니다. -교훈을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각색되었다.)

질투에는 두가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첫째의 경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둘째의 경우는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다.

미워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은 동급생 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같은 자식인데, 같은 나이인데, 같은 계급인데 등등. 어떤 경쟁심리가 작용할 경우 질투하게 된다.

이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는 배신감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이 질투는 두 번째 경우보다 더 격정적이며, 심지어는 증오심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배신감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우상 숭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주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았을 때 탕감 받았던 형벌까지 고스란히 다시 받게 된다.

사랑받기 때문에 베풀어졌던 보살핌, 너그러움, 죄사함과 용서, 탕감 등등이 사라진다. 거기에 과거에 베풀어졌던 특혜까지 하나 둘씩 취소당하게 되어 더욱 곤고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질투하시는 하

## 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섬기기 어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염려하였다. 계명을 쉽게 잊어버릴 것이라는 것, 막상 자기가 거짓말을 해야 하겠다는 순간이 다가오면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유혹에 빠진다는 것, 대단한 열정이 아니고서는 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말로만으로도 우상을 섬기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우상을 섬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집안에서는 이미 우상 한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주의에 빠진 기독교인들은 전도하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저들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 힘들지 않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주와 형벌로 인한 고통 보다는 율법주의의 고난이 더 낫다.)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켰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과 광야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었다.

올바른 역사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과장된 역사나, 왜곡된 역사는 힘이 없다. 핵심에서 벗어난 역사교육이나 하나님이 빠진 역사 교육은 죽은 역사나 다름없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왜곡이며, 주객의 전도이다.

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처럼 역사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 세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다.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들.

ebs 다큐프라임을 통해서 소개함. (2016.8.29.-9.7 6부작)

앙트레프레너로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이 소개됨. 그러나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함. 오늘도 여전히 혁신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세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가?

혁신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진행된다.

그러나 혁신가만 있다고 혁신이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중요하고 그 분위기는 당시 통치자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혁신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독일은 전쟁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하지 않는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 질투받는 존재인가?



<찬양예배>

제목 : 니체 이해하기2      성경: 행7:51-53

Tag: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니체(프리드리히 빌헬름)

독일의 철학자. 생(生)철학의 대표자로 실존주의의 선구자, 또 파시즘의 사상적 선구자로 말해지기도 한다. 본 대학을 거쳐 스위스의 바젤 대학 교수직(1869~1879)을 그만두면서부터 고독한 생활을 하다가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서 생애를 마쳤다.

그는 종래의 합리적 철학, 기독교 윤리 등 모든 종래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고 철저한 니힐리즘(nihilism)을 주장하여 생(生)의 영겁회귀(永劫回歸) 속에서 모든 생의 무가치를 주장하고, 선악의 피안에 서서 '약자의 도덕'에 대하여 '강자의 도덕'을 가지고 '초인'(超人)에 의해서 현실의 생을 긍정하고 살아야 함을 주장했다.

이 사상 속에는 생물진화론의 생존투쟁의 사고가 존재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진행해 가는 19세기 말의 사회 상태를 반영하여, 노동자 계급의 격렬해져 가는 공세 앞에서 자본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종래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대신

하여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를 제창하였으며, 사회주의를 '노예도덕'으로 간주하고 지배계급의 독재지배를 '군주도덕'으로 높이 내걸어 '권력에의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니체 [Nietzsche, Friedrich Wilhelm] (철학사전, 2009., 중원문화)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부

『차라투스트라』 1부의 핵심은 신의 죽음과 위버멘쉬 사유다. 이 책은 차라투스트라의 서설(머리말)로부터 시작하고 모두 22개의 차라투스트라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저편의 또 다른 세계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천 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창조자의 길에 대하여」, 및 「베푸는 덕에 대하여」는 핵심적인 장들이다.

1. 「머리말」 : 『차라투스트라』 전체에 대한 도입부이면서 동시에 『차라투스트라』 내용 전체를 요약해 놓은 부분

- 차라투스트라의 하산
-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종말과 새로운 가치척도로서의 대지
- 인간 실존의 이상적 모습으로서의 위버멘쉬

2.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 위버멘쉬 사유에 대한 입문부분

- 위버멘쉬에 이르는 정신의 과정이, 낙타에서 사자를 거쳐 어린이에 이르는 과정으로 비유된다.

- 낙타의 정신은 기존의 자명성에 복종하고 외경하는 정신의 상태.

## 부정할 힘의 부재

- 사자의 정신은 기존의 자명성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획득한 상태

- 어린아이의 정신은 창조력을 갖춘 정신. 새로운 자명성 창출 가능성의 획득

### 3. 「덕의 강좌에 대하여」 : 기존의 덕에 대한 비판

- 기존의 덕은 “편안한 잠“의 수단. 즉 인간의 자기보존과 유지에 유익한 것. 내용 :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 기회주의, 쾌락주의, 수동주의, 기존의 것에 대한 복종, 무기력, 대중적 권위, 모든 것들과의 평화적 관계맺음을 권유

- 삶의 지혜에 대한 왜곡

### 4. 「저편의 또다른 세계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 형이상학적 이분법에 대한 부정, 새로운 세계관의 제시

- 철학적 신앙과 종교적 신앙의 공통점은 형이상학적 이분법

- 이편의 세계와 저편의 세계/내재세계와 초월세계/생성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라는 이분법은 진정한 실제 세계인 이 세계를 부정하는 세계해석인 것

-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은 이런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한 예

### 5. 신체를 경멸하는 자들에 대하여 : 이원적 인간관의 극복

- 인간은 영혼과 육체와 의지와 의 불가분적 통일체인 신체(Leib)

- 신체=나(Ich)=큰 이성=인간

- 인간은 확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과정적 존재. 과정의 양태는 자기극복과정

- 사유하고 판단하는 이성=작은 이성

- 전통철학의 오류는 작은 이성에 대한 과대평가



6. 환희와 열정에 대하여 : 비이원적 인간의 덕에 대한 설명

- 특징 : 열망과 열정과 충동이라는 자연적 부분에 토대를 둔다.
- 목적 : 신체적 인간의 자기실현

7. 창백한 범죄자에 대하여 :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비판하는 자에 대한 옹호

- 전통적인 도덕체계는 자신의 비판자를 판결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

8. 읽기와 쓰기에 대하여 : 글 쓰는 자와 독자와의 관계

- 이상적 글의 형태 : 글 쓰는 자의 “피“로, 즉 그의 생동적인 내적 확신에 의해 쓰여지는 것
- 독서방식 : 실존적 체득과 고뇌를 통한 의미의 체화
- 효과 : “피“로 쓰는 글을 쓸 수 있는 자로의 독자의 변화
- 『차라투스트라』를 읽을 수 있는 독자에 대한 비유,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9. 산허리에 있는 나무에 대하여 : 정상에 이르지 않은 사유에 대한 비유

- 기존의 자명성을 파괴한 사유가의 삶은 대중과는 분리된 고독한 형태
- 새롭고도 건설적인 사유, 정상에 이르는 사유를 위한 전제는 독자적 사유능력

10. 죽음의 설교자들에 대하여 : 신체경멸자들의 그리스도교적-종교적 형태

- 삶과 세계의 의미를 죽음 이후의 존재에서, “영원한 삶“에서 찾는 자. 지상에서의 삶과 세계를 부정하는 자
- 이들이 지배하는 현대세계의 상황

- 예외적 존재 : 전사, 즉 삶의 의미를 싸움을 통한 극복의 과정에서 찾는 자

11. 전쟁과 전사에 대하여 : 자기극복을 하려는 자들의 실존양태

- 대중적이지 않은 존재=예외적 존재=자기극복 의지가 있는 존재
- 삶의 목적 : 자기 극복, 위버멘쉬. 수단 : 힘 의지에 의한 싸움
- 덕 : 연민이 아니라 용맹, 평화가 아니라 전투, 도덕적 선이 아니라 용맹스러움, 이웃사랑이 아니라 악의, 복종이 아니라 명령

12. 새로운 우상에 대하여 : 국가에 대한 비판

- 국가는 신이라는 옛 우상의 자리를 대체하는 근대적 우상
- 국가는 인위적으로 구축된 관념적 상부구조. 권력유지수단은 징벌과 보수
- 국가는 인간의 자발성과 자유와 창조성을 무력화시키는 것

13. 시장터의 파리들에 대하여 : 대중사회의 성격과 위협에 대한 경고

- 중심인물 : “배우“ 즉, 대중의 인기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자.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목록을 대변하는 자(학자, 성직자 등)
- 대중의 특징 : 비판적 시각의 부재. “배우“가 일으키는 열광과 광란의 상태를 필요로 하는 “파리들“
- 대중의 역할 : “배우“들의 유지와 보존
- 이런 “시장터“ 같은 사회적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삶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 순결에 대하여 : 자연적 충동과 충동의 자발적 자제로서의 순결

- 관능과 성은 자연적 충동이며 순수한 것. 그 욕구의 만족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관능의 범람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금욕 및 자기고행과 결부된 체

념의 태도가 아니라, 강제로부터 해방된 자기 의지적 자제

15. 벗에 대하여 : 진정한 벗의 의미

- 인간의 상호관계 중에서 최고의 형태는 관계 맺는 자들을 창조자로 발전시키는 것. 우정은 이 관계의 대명사
- 이런 관계를 맺는 자들이 진정한 벗
- 여인들의 사랑이나 남성들의 동지관계도 이런 우정의 형태로 되어야 한다.

16. 천 개의 목표와 하나의 목표에 대하여 : 새로운 도덕

- 도덕적 가치평가는 특정 민족의 힘에의 의지의 소산, 따라서 특정 민족의 도덕은 일반화되거나 보편화될 수 없다.
- 인류가 지향해야 할 도덕유형은 위버멘쉬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도덕
- 인간의 의미 : 가치 평가자, 의미 창조자

17. 이웃사랑에 대하여 : 이웃사랑이라는 덕에 대한 비판

- 탈아나 몰아로서 간주되어온 이웃사랑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개인의 자율적인 자기관계를 방해하는 것
- 이웃사랑보다는 벗과의 우정관계가 더 바람직하다. 서로간의 자기극복을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
- 이타주의는 이기주의보다 더 도덕적일 수 없다.

18. 창조하는 자의 길에 대하여 : 창조자의 본질적 계기

- 자기 스스로를 창조주체로, 위버멘쉬적 존재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과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제
- 창조자의 본질적 계기 :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경멸(및 파괴)

19. 늙은 여인들과 젊은 여인들에 대하여 : 여성의 기능

- 여성은 위버멘쉬라는 실존적 과제를 갖는 진정한 남성들을 도와 그 과제를 달성하게 하는 존재

## 20. 아이와 혼인에 대하여 : 혼인의 의미

- 혼인의 정당한 동기 :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를 창조하려는 열망
- 자격조건 : 자기지배적이고 자기입법적인 존재

## 21. 자유로운 죽음에 대하여: 죽음의 진정한 의미

- 죽음과 삶은 모순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 숙명적인 예상할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해 실현되는 죽음은 최고의 자기지배의 표명이다. 이것이 완성된 죽음이다.

## 22. 베푸는 덕에 대하여 : 1부에서 묘사된 새로운 덕에 대한 총괄

- “베푸는 덕“은 차라투스트라가 인류에게 선사하는 덕이며, 그것은 자기지배와 자기초극의 덕
- 이 덕은 인간과 삶과 대지에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제),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차라투스트라 2부는 힘에의 의지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형식적으로는 차라투스트라의 설교형식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만남과 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1부처럼 공언하는 교설이라기보다는, 좀더 성숙하고 여유있는 어조로 쓰여져 있다. 2부 역시 2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행복한 섬에서」, 「춤에 부치는 노래」, 「자기극복에 대하여」는 단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종결부인 「더없이 고요한 시간」은 3부에서 전개될 허무주의 도래에 대한 니체의 경고와 허무주의 극복에 대한 니체의 전략을 암시하고 있다. 즉 영원회귀 사유를.

1. 거울을 갖고 있는 아이 : 1부의 내용들이 오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유

- 오해를 받으면서도 힘에의 의지에 대한 두 번째 사유를 전해줄 필요를 느끼는 차라투스트라. 인간 세상으로의 두 번째 하산

2. 행복한 섬에서 : 행복의 조건-신의 허구성 증명

- 창조자의 본성은 힘에의 의지다. 힘에의 의지=창조의지=생식의지
- 이런 통찰에 입각한 신에 대한 네 가지 반박
  - 인간적 해석의 허구성에 의한 반박
  - 인간의 창조의지의 유의미성 확보를 위한 반박
  - 신 개념의 생성적대적 성격에 의한 반박
  - 위버멘쉬의 존재를 위한 반박

3. 연민의 정이 깊은 자에 대하여: 연민의 덕에 대한 비판

- 연민(과 용서)은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기에 극복해야 할 감정
- 진정한 사랑은 인간의 의지와 투쟁의 힘을 강화시켜, 인간을 위버멘쉬로 고양시키는 것
- 인간에 대한 신의 연민은 특정인에 의한 신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

4. 사제에 대하여 : 그리스도교 사제에 대한 첨예한 공격

- 그리스도교를 성립시킨 요소들인 구세주 유형, 그리스도교 도덕, 교회라는 제도와 교회적 교리는 사제들의 작품
-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인 예수가 제시한 그리스도교성에 대한 왜곡

5. 도덕군자에 대하여 : 전통적인 덕에 대한 비판

- 기존의 덕 : 허세로서의 덕, 교육적 기능을 갖는 덕, 덕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는 덕, 인간의 전체모습을 담지 못하는 덕, 덕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덕
- 무사(Selbstlosigkeit)의 덕

6. 잡것들에 대하여 : 삶을 오염시키는 존재들에 대한 비유

- 인간사회의 지배자 유형은 권력지향적 존재
- 인간의 상승과 고양을 방해하는 존재

7. 타란툴라에 대하여 : 평등을 설교하는 자에 대한 비유

- 정치적·철학적·종교적인 평등원칙의 계보 : 자기와 다른 자나 위대한 자에 대한 약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복수심
- 차라투스트라의 인간 불평등론. 그 이유 : 자기극복과정의 차이

8. 이름높은 현자들에 대하여 : 철학자들의 지혜에 대한 불만

- 전통적인 철학적 지혜는 대중들과 종교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목적에 기여하는 것. 정신에 대한 오해

9. 밤의 노래 : 고독한 자의 노래

- 차라투스트라의 인간애는 인류에게 자신의 심원한 사유를 가르치는 것
- 자신의 인간애를 이해 받지 못하는 차라투스트라의 고독

- 그의 인간애의 지속

10. 춤에 부친 노래 : 지혜와 삶의 분열과 차라투스트라의 선택

- 지혜에 대한 사랑은 삶에 거리를 둔다. 삶에 대한 사랑은 오성과 이성의 도구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인식/지혜와 삶은 이런 분열의 관계에 있다.

- 차라투스트라 자신의 분열상태. 결국 후자를 선택한다.

- 논리적 지혜로는 파악될 수 없는 삶의 토대. 영원회귀 사유에 대한 암시

11. 만가 : 잃어버린 청년기적 이상의 파라다이스에 대한 애달픔과 그것의 극복

-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자체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것.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긍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은 차라투스트라가 기획했던 생성에 대한 정당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했다. "무덤의 섬"에 묻혀버린다. 그래서 차라투스트라는 애달파 한다.

- 이런 탄식을 차라투스트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는 의지에 의해 극복한다.

12. 자기극복에 대하여 : 삶의 근본법칙으로서의 힘에의 의지

- 힘에의 의지가 삶의 근본법칙이기에, 삶은 항상 상승과 강화를 지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지들은 명령하고-복종하는 관계를 지속시킨다.

- 힘의 상승과 강화라고 하는 목표는 삶을 자기극복적인 과정이 되게 한다.

- 힘에의 의지는 가치평가행위의 주체다.

- 생식의지, 생식충동, 목적에 이르고자 하는 충동 등은 힘에의 의지에 대한 다른 표현

- 인간의 인식의지나 진리의지도 힘에의 의지의 표현

13. 고매한 자에 대하여 : 인식자와 철학자에 대한 조롱

- 인식자나 철학자들은 정신의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상실한다.

- 이와 대립되는 경우는 창조자의 자유정신

14. 교양의 나라에 대하여 : 현대와 현대적 교양에 대한 비판

- 현대의 교양은 전통적인 자명성들을 새로운 다채로운 기호로 위장하고 있는 것

- 현대인을 허무주의자로, 현대를 허무적 시대로 만든 원인

15. 때묻지 않은 삶에 대하여 : 금욕적 인식태도에 대한 경고

- 세계에 대한 순수하고도 이해관계를 벗어난 정신적 관조, 관조적 행복을 추구하는 인식자는 금욕주의자다.

- 금욕적 인식태도는 육체와 지상적인 것에 대한 정신의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오해인 것

- 진정한 인식은 자신의 힘과 삶의 상승이라는 목표를 향하는 것, 즉 힘에의 의지라는 규제적 원리에 의해 인도되는 인식. 이것이야말로 순수하고도,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식

16. 학자에 대하여 : 학자들의 작업방식에 대한 비판. 특히 고전문헌학에 대한 조롱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탐구대상과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고통스런 사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학자들. 이들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을 반복하거나 인용하면서 작업한다. 여러 가지 가설들을 조합하여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 이들은 사유의 열기를 갖고 있지 않다. 현대의 학문은 이런 작업의 결과이다.



17. 시인에 대하여 : 시인들에 대한 풍자

- 시인들의 일반적 특징: 지나친 피상성, 긍정적이거나 정확한 삶의 부족, 환상과 우화에의 의존, 환상과 실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능, 믿음과 증명된 것과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무분별, 시작(Dichtung)과 철학적 인식의 간격을 없애버리는 무지
- 시인들의 자기반성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들은 “정신의 참회자“들

18. 크나큰 사건에 대하여 : 허무적인 현대성에 비판

- 현대의 정신적 가치들은 허무적 시대의 원인
- 교회를 대신하는 현대의 새로운 이상인 국가

19. 예언자 : 허무주의 도래에 대한 예언

- “모든 것은 공허하다. 모든 것은 한결같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허무적 통찰이 지배하는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
-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인 허무주의
- 허무주의 극복수단인 위버멘쉬에 대한 희망

20. 구제에 대하여 : 구제의 진정한 의미

- 전통적 자명성에 충실한 자는 불구자나 마찬가지로 구제의 대상이다.
- 진정한 구제는 생성에 대한 정당화에 의해 가능한 것. 정당화 작업의 주체는 창조의회

21. 세상살이를 위한 책략에 대하여 : 차라투스트라의 이중의 의지

- 위버멘쉬를 향하는 의지
- 인간세상을 견뎌내려는 의지 : 그 책략은 인간세상의 모습을 왜곡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인간에 대한 연민, 악에 대한 관용, 차라투스트라 자신의 모습을 은폐시키는 것

22. 더없이 고요한 시간 : 차라투스트라의 사유에 대한 재고찰

- 차라투스트라의 사유들이 초래할 수 있는 허무주의 가능성에 대한 예견

- 자신의 사유들과의 재대결을 통해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 영원회귀 사유가 그 단초

[네이버 지식백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제),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

『차라투스트라』 3부는 영원회귀 사유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와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에서 알레고리 형식을 빌어 영원회귀 사유의 핵심 내용이 전개된다. 그리고 영원회귀 사유에 의해 위버멘쉬 희망이 실현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런 구도는 영원회귀 사유와 위버멘쉬 그리고 힘에의 의지 및 허무주의 극복이라는 니체의 주요 사유들을 정합적인 전체를 이루도록 한다. 본문은 1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찬가와 독설 그리고 극적인 독백이 론도 형식을 띠면서 혼합되어 있다. 영원회귀 사유 외에도 도덕비판과 차라투스트라의 자기고백적인 해설 부분이 3부의 주요내용을 형성한다.

1. 방랑자 : 사유정상에 오르는 길

- 영원회귀 사유의 의미와 함축 및 그 결과를 선택한 차라투스트라
- 인간에게 다시 돌아가 영원회귀 사유를 알려야 하는 그의 운명

2. 환영과 수수께끼에 대하여 : 영원회귀 사유의 두 가지 기능

- 위버멘쉬로의 실존적 결단을 통한 허무주의 극복가능성 제시
- 순간의 영원성 확보

3. 뜻에 거슬리는 열락에 대하여 : 영원회귀 사유의 무게

- 차라투스트라에게 영원회귀 사유는 감당하기 어렵다.
- 이유 : 그의 인간애는 인간을 창조적 존재로서 자각하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이지, 허무주의자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4. 해 뜨기 전에 : 형이상학적 초월성에 대한 거부

-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초월적 목적을 상정한다.
- 이런 해명방식은 세계를 긍정하는 해명방식은 될 수 없다. 새로운 해명방식이 등장할 순간의 도래

5. 왜소하게 만드는 덕에 대하여 : 현대도덕에 대한 비판

- 현대도덕의 특징 : 인간 자신과 세계에 대한 폄하
- 형식적으로는 절대적 도덕이고, 선의와 연민과 정의를 덕목으로 한다
- 이런 도덕을 따르는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비겁한 행위이다.

6. 감람산에서 : 차라투스트라의 결연한 의지

- 자신의 사유가 초래할 수 있는 오해나 실천적인 부정적 귀결 때문에 침묵하는 것보다는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결심

- 그 이유 : 인간에 대한 사랑은 연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강화 시켜주는 것

7. 그냥 지나쳐 가기에 대하여 : 허무적 세계에 대한 경멸과 외면

- “큰 도시“라고 하는 현대 세계의 특징은 정신 대신에 피상성이, 자율적 판단 대신에 대중매체나 권력집단이나 사회적 요구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덕 대신에 악덕이 지배한다. 허무적 세계

8. 배신자에 대하여 : 수동적 허무주의에 대한 비판

- 신의 죽음에 의해 파괴된 그리스도교적-종교적 세계관을 다시 받아들이는 허무주의자. 수동적 허무주의자

- 그리스도교적 신의 존재증명은 '신앙을 통한 증명'

- 그리스도교적 유일신관의 허점

9. 귀향 : 차라투스트라의 위협과 고독으로의 귀향

- 차라투스트라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인간과의 동거. 이유 : 인간에 대한 온정과 연민은 차라투스트라의 결연한 의지를 약화시킨다.

- 연민의 도덕에 대한 비판

10. 흔히 말하는 악 셋에 대하여 : 감각적 쾌락과 지배욕과 이기심에 대한 재평가

- 감각적 쾌락과 지배욕과 이기심은 도덕적 악이 아니라 선

이유 : 상승하는 삶을 위한 덕목

11. 중력의 악령에 대하여 : 절대적 도덕에 대한 비판

-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중력의 악령“이라는 절대적 도덕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적의

- 절대적 도덕은 무조건적이고 모든 이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도덕이다. 예를 들어 이웃사랑의 덕목

- 자신의 삶을 척도로 하는 도덕판단의 개별성과 조건의존성 및 상대성에 대한 지적

12. 낡은 서판과 새로운 서판에 대하여 :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들에 대한 자기해설

- 1)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들을 사람들은 왜곡하고 오해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말하려 한다.

- 2) 선과 악은 창조하는 인간 자신의 가치평가의 결과이다.

- 3) 위버멘쉬는 인간실존의 목적이고, 창조자다.

- 4) 자기극복을 가능하게 하는 덕. 이웃사랑/온정/연민은 그 수단이 될 수 없다.

- 5) 삶은 고통이라는 계기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고통을 긍정하라!

- 6) 인간으로서의 몰락은 위버멘쉬에 이르는 길이다.

- 7) (기존의) 선한 자는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다. 모방과 복종하는 유형일 뿐

- 8) 절대적 도덕은 가능하지 않다. 절대적 도덕의 낡은 서판을 파괴하라!

- 9) 무조건적인 도덕적 판단은 망상이다. 도덕판단은 자율적이어야 한다.

- 10) 기존의 도덕은 생명의 본성에 대립적인 것. 반자연적이다.

- 11) 반자연적 도덕은 천민의 도덕. 귀족적 유형과 귀족적 평가가 필요하다.

- 12) 귀족적 평가는 미래지향적이고 위버멘쉬적 평가이다.

- 13) 삶에 대한 허무적 평가는 삶의 지혜가 아니라 요설이다.

- 14) 이 세계에 대한 폄하는 형이상학적 이분법의 관점

- 15) 형이상학적 사유는 세계부정적 사유. 파괴의 대상

- 16) 인식 및 진리추구는 인식자의 의지작용이고, 그런 한에서 자유로운 유희

- 17) 이 세계에 지쳐있는 자는 사라져야 할 존재
- 18) 적극적인 창조주체
- 19) 고결하고 강한 자 : 힘에의 의지로서의 세계와 인간존재에 대해 절대적인 디오니소스적 긍정을 하는 자
- 20) 위버멘쉬가 될 수 없는 자는 몰락해야 한다.
- 21) 대중들이 지배하는 현대세계
- 22) 대중들은 생존을 위한 삶을 영위한다.
- 23) 바람직한 남성상과 여성상. 자신을 극복하는 투쟁적인 남성과 좀더 나은 존재를 잉태하는 여성
- 24) 혼인과 생식의 목적은 위버멘쉬적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
- 25) 인간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성된다. 지배자는 자기입법적이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 “사회계약“은 이런 지배자와의 계약이어야 한다.
- 26) 인류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선한 자와 의로운 자. 이들은 창조자와는 대립적인 존재이며 창조자를 희생시키려 한다.
- 27) 선한 자와 의로운 자는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인간[종말인]이다.
- 28) 유럽의 절대적 도덕이 원하는 선은 왜곡이고 거짓말이며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
- 29)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자의 결연한 의지
- 30) 미래를 약속하고, 온갖 허상이 사라지는 '위대한 정오'의 도래

### 13.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 : 영원회귀 사유의 두 가지 기능

- 이론적 측면 : 힘에의 의지에 의한 세계해명방식을 완결시킨다. 생기존재론의 완성
- 실천적 함축 : 영원회귀 사유는 인간의 자의식의 변화와 실존양식에 대한 결단을 요구한다. 위버멘쉬적 존재로서의 자각과 그것의 실천은 영원회귀 사유가 초래할 수 있는 허무적 경험을 극복한다.

### 14. 위대한 동경에 대하여 : 차라투스트라의 영혼의 노래

15. 춤에 부친 또 다른 노래 : 2부의 「춤에 부친 노래」의 후속 부분

- 생명의 어린아이적 속성과 이런 속성의 표현인 춤
- 차라투스트라는 생명의 이런 면을 통찰하는 지혜의 소유자

16. 일곱 개의 봉인 :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

- 1) 위버멘쉬
- 2)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에 대한 긍정
- 3) 창조자로서의 인간
- 4) 선과 악의 본질적·가치적 구분의 폐기
- 5) 세계의 무한함에 대한 자각
- 6) 자유정신과 창조를 위한 파괴
- 7) 표현의 제한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라,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능력

[네이버 지식백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제),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4부

『차라투스트라』 4부이자 최종부는 앞의 세 부와는 형식적인 면에

서 다르게 구성된다. 20개의 장으로 구성된 4부 전체가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실패한 자유정신인 자들과의 연이은 만남과 대화로 구성된다. 이 구성은 4부 전체를 완성된 소설처럼 만든다. 『디오니소스 송가』의 자유로운 리듬을 갖고 있는 언어형식도 처음 등장한다.

### 1. 꿀봉납 : 높은 산 위에서의 낚시질

- 차라투스트라는 행복이라는 마음 속의 꿀을 미끼로 인간을 낚는 어부이다.
- 인간의 천년제국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희망

### 2. 구조를 청하는 절박한 외침 : 4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상황의 전개, 실패한 자유정신들의 구조요청

- 실패한 자유정신이 처해있는 허무주의라는 위험
- 위버멘쉬라는 미래의 도래를 의심하는 예언자의 등장
- 차라투스트라의 반박

### 3. 왕들과의 대화 : 천민의 지배자였던 존재인 왕과의 만남

- 천민의 세계는 전통적인 자명성들과 새로운 현대적 자명성들의 혼합상태
- 천민의 지배자였던 왕들은 강자가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 왕들은 현실에서 그들의 희망지를 찾을 수 없기에 절망한다. 허무상태에 빠져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다.

### 4. 거머리 :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학자에 대한 비유

- 이들은 “정신의 양심을 가진 자“, 학적 성실성과 엄밀성 및 엄격함을 갖고 있는 자
- 하지만 특수분야를 탐구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일 뿐이다. 협소한



인식의 소유자. 머리의 생명력을 빼앗아 가는 “거머리“ 같은 존재

5. 마술사 : 정신의 참회자 '역할'을 하는 배우에 대한 비유

- 그의 행위는 거짓이며 연극이고, 천민의 시대에서 위대한 자로 인정받는다.

- 진정한 정신의 참회자일 수 없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과 역겨움으로 인해 허무주의자가 된다.

6. 실직 : 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직업마저 상실한 교황에 대한 비유

- 교황의 신 부정 이유 :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한 부분적 실망 (판관으로서의 신, 동정녀 수태나 지옥 등의 허구, 연민의 신, 자신을 보이지 않는 신)

- 차라투스트라의 신 부정 이유 : '창조주'로서의 신의 본질적 모순. 교회의 계시사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부정

7. 더없이 추악한 자 : 허무적인 신 부정방식

- 인간의 자기혐오와 자기부정이 신을 살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유 : 이런 인간은 자신의 모든 면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신이라는 목격자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추악한 자“

- 허무적인 신 부정 방식

8. 제 발로 거지가 된 자 : 산상수훈자에 대한 비유

- 실패자. 이유 : 인간에 대한 구토

9. 그림자 : 실패한 자유정신에 대한 비유

- 차라투스트라를 좇을 뿐, 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자이며 방랑자인 자유정신

- 여러 다른 사상들에 부딪히면 허무주의자가 되는 운명

10. 정오에 : 그림자가 가장 짧은 시간/허상이 없는 시간에 대한 비유

- 세계의 완전성을 경험하는 최상의 시간
- 완전한 세계는 긍정의 대상
- 완전한 세계에 대한 긍정은 인간적 행복의 극치

11. 환영인사 : 실패한 자유정신들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

- 절박한 구조외침은 차라투스트라가 노상에서 만났던 모든 종류의 허무주의자의 외침
- 이들은 차라투스트라가 기대하던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동경과 권태와 역겨움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허무주의자
- “웃는 사자“(창조적 기쁨을 누리는 의지적 존재) 같은 성공한 자유정신의 등장에 대한 차라투스트라의 희망

12. 최후의 만찬 :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패러디

- 실패한 자유정신들은 옛 자명성을 다시 찾고 싶어한다.
- 차라투스트라는 빵과 포도주를 원하는 이들에게 전사와 정복자의 양식인 양을 제공한다.
-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에 대한 설교

13.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에 대하여 : 실패한 자유정신에 대한 비유와 그들의 특징

- 1) 모든 평등이념의 거부
- 2) 신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보다 지체가 높은 인간“. 위버멘쉬를 준비하는 자
- 3) 위버멘쉬라는 목표를 위해 인간의 모습을 경멸하는 자
- 4) 신을 부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고 있는 존재
- 5) 최악을 최선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자

- 6) 하지만 인류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자
- 7) 현대인으로서 지체 높은 자는 결핍된 자유정신
- 8) 현대사회는 천민의 사회이고, 현대인은 천민
- 9) 그들의 위협
- 10) 자신의 의지로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 11) 이기심을 덕목으로 하고, 이웃사랑이라는 옛 덕목을 거부해야 한다.
- 12) 이미 후예를 갖고 있는 자
- 13) 옛 자명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 14) 그들의 방법적 오류
- 15) 실패한 자유정신이지만 자유정신으로의 시도 자체는 의미있는 것
- 16) 이 세계를 사랑하지 않는 자
- 17) 자기극복의 춤을 출 수 없는 존재
- 18) 이 세상에서 웃을 수 있는 존재인 차라투스트라와는 다른 존재
- 19) 현대 세계의 천민근성을 버리고, 춤은 출 수 없더라도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만이라도 되라는 차라투스트라의 권유
- 20) 실패작.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자의 웃음“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 14. 우수의 노래 : 허무주의자의 우수

- 보다 지체가 높은 자들은 실패작
- 진리를 찾지 못한 채 단지 시인이나 광대의 역할을 한다.

#### 15. 과학[학문]에 대하여

- 학자의 견해 : 학자는 환상이나 믿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확실한 앎을 추구한다. 학문은 인간의 공포심을 없애기 위해서 건축된 것
- 차라투스트라의 견해 : 학문이란 삶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

지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

16. 사막의 딸들 틈에서 : 허무주의자의 노래

17. 각성 : 신앙의 부활. 실패한 허무주의 극복

- 차라투스트라의 생각 : 실패한 자유정신들이 차라투스트라의 양식을 받아서 허무적 권태와 구토를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가 된다.

- 실제상황 : 그들은 다시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다.

- 옛 신 대신에 이제는 나귀로 비유되는 새로운 우상들이 숭배의 대상. 국가, 사회주의 이념, 공리주의 이상, 윤리적 보편주의, 행복주의, 이성 등

18. 나귀의 축제 : 새로운 우상

- 새로운 우상을 출현시킨 자는 신 부정에 실패했던 '더없이 추악한 자'

- 허무주의자의 생각 : 새로운 형태의 신은 인간에게 가장 믿을 만한 것

- 차라투스트라 : 그들의 우상숭배 자체에 대한 혐오. 하지만 초월적인 신 자체를 거부하고 지상적인 신을 찾는 것은, 지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차라투스트라의 프로그램에 좀더 접근하고 있는 것

19. 몽중보행자의 노래 : 긍정의 대상

- “더없이 추악한 자“는 차라투스트라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 차라투스트라의 대응 : 진정한 숭배와 긍정의 대상은 인간과 삶 그리고 세계 자체라는 것을 설명. 이 세상에 존재하며, 생성법칙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은 그것의 영원회귀를 바랄 만큼 긍정과 찬미의 대상이라는 것

- 매순간의 영원성에 대한 강조

20. 조짐 : 성공한 자유정신의 도래에 대한 희망

- 차라투스트라와 '보다 지체 높은 자'들인 허무주의자들과의 정신적 거리

- 이들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 “사자의 웃음“을 짓는 성공한 자유정신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차라투스트라

- 차라투스트라의 인간애

[네이버 지식백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4부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제), 2004.,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76>

니체는 다윈의 진화론을 알고 있었다. 수십억 년 생명의 나무\*가 진화해 온 과정에서 인간이 지상에 존재한 세월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인간은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라는 말은 인간중심의 사고방식만 벗어던지면 얼마든지 수궁할 수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목적이 아니라 다리’에 불과한 인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대들은 벌레로부터 인간에 이르는 길을 걸어왔지만, 아직 그대들 내면에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벌레다. 일찍이 그대들은 원숭이였고, 지금도 인간은 어떤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다.” (같은 책, p.57)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낡은 신이 죽은 텅 빈 세계, 발 딛고 설 땅이 사라진 폐허에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할

까? 니체가 볼 때 인간은 새로운 신을 만드는 대신 ‘초인’으로 거듭나야 했다. 그에게 ‘초인’은 낡은 문명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영혼, 이상 없이 자족하는 존재, 스스로 생성하며 즐거워하는 어린이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초인’을 알리러 온 예언자였다.

니체가 세상을 떠난 1900년 이후 그의 사상이 유럽에 급속히 받아들여졌고, 니체에 열광한 사람들 중에 히틀러를 위시한 게르만 우월주의자도 있었다는 걸 기억한다. 니체는 누이동생 엘리자베트와는 달리 게르만 우월주의를 혐오했지만, 그의 사상이 순식간에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로 변질할 소지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이 니체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다면 비약이겠지만, 게르만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나치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죄책감을 덜 느낀 게 니체의 ‘초인’ 사상 덕분이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의 ‘초인’은 프로토-파시즘(proto-fascism, 파시즘의 원형)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